

# Ἡ Ἰστορία τῆς Ἀβραάμ ἡμερῶν τῆς Παλαιᾶς Διαθήκης

##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 창세기 11:27-12:3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10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1:27-12:3.

10과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회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정의 보편적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족장들의 구체적인 역사에 주목합니다. 머리글은 11장 27절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번역한 족보입니다.

테라님의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읽히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록 때문입니다. 족보 표제의 기능은 구조적 장치로서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고리나 결속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데라의 경우, 바로 그 이름은 26절로 끝나는 셈의 족보에서 앞서 나오는 것, 즉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첩으로서 그것은 또한 이 가족, 이 경우에는 테라 가족이라고 명명된 그 가족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족장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지정됩니다.

이제 머리글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매우 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1장 27절에서 시작하여 25장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놀라운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던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리고 족장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족장들의 설명에는 하나님과 족장 사이의 관계, 상호 작용, 대화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저자의 오랜 서술적 관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창조만큼 중요한 사건에서 발견한 내용과 비교하여 창조에 관해 두 개의 장이 주어지는데, 1장입니다. 그리고 2. 그리고 인류,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반역할 때 트라우마로 인한 가장 중요한 우주적 변화

와 일련의 깨어진 관계의 결과입니다. 한 장이 주어졌으나 이제 이 장은 모두 데라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 즉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인류가 경험한 깨어짐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가져올 관심, 즉 내가 당신에게 가져올 관심은 우리가 야곱과 요셉에 대한 두 개의 긴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에 더 깊을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다는 것을 서두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먼저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삭을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가족의 긴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계획과 패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주요 아이디어와 주요 과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덜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후속 가부장적 이야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7개의 세션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각 세션마다 두 장씩 있습니다.

저자의 눈과 우리의 연구에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11장에 이름이 나와 있고 11장 26절에서 셈족의 족보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주가족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초점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을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홍수 후 세계에 태어난 사람으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독자가 특정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협소한 관심을 갖도록 이끈다. 그는 또한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사실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히브리인이었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메소포타미아 혈통에서 나왔고,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였으며 나중에 그가 히브리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히브리인은 여행자, 이주자, 경계를 넘는 사람으로 식별되는 사람이었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것은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나그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구조나 내용에 대해 말해보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으며 이는 언약이라는 용어에 속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비록 이 구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고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연구생들은 모세 언약을 말할 때 이 구절을 언급할 것입니다. 계약.

그리고 15장에서는 언약의 의식이 나옵니다. 이제 고대 세계의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노아의 경우처럼 단방향, 단방향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6장에 처음 등장하고 그 내용은 9장에 나옵니다. 그 표징은 9장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으며 초점은 한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선함과 사랑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적인 사랑, 즉 조상을 향한 사랑으로 족장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으로 택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을 맺기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5장은 언약 당사자들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맺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하는 예식이다.

17장은 언약의 표징, 즉 할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성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에는 언약을 확증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배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문에서 내가 창세기의 일부를 오경 전체, 즉 토라의 맥락에서 해석하여 창세기를 신명기를 통해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서곡이자 서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체가 바로 모세, 그의 120년 인생이다. 더욱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은 축적된 대로 다양한 부분을 받은 후 모세 공동체에 폐쇄된 사람들, 점차적으로 광야의 1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세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을 받거나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모세 오경, 토라를 포괄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약속하신 1장에서 축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구원자에 관해 약속하신 동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반복적으로 축복의 개념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 패턴이 창조 때, 에덴동산에서,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 언약과 함께 확립되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제의 특수성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모티브라고 부르는 것, 즉 MOTIF와 비교하여 테마가 무엇인지 언급하겠습니다. 테마에 대해 우리는 스웨터와 같이 매우 채색되고 다양한 색상의 의복에 대한 비유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배적인 색상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색상도 있지만 그다지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기여합니다. 예술성과 아름다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배적인 아이디어가 되고, 사소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우산이 되며, 이것이 모티브가 됩니다. 세 가지 지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엮을 때 약속에 대한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오경에 관해서는 족장들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된 약속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관해 주어진 약속이 성취됨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 이행의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취 또는 성취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토라 오경의 주제가 있을 때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편파성,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라. 그리고 여기 세 가닥이 있습니다. 첫째, 영토, 토지가 있습니다.

둘째, 자손이나 인구, 자손, 혈통, 유산입니다. 셋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실제로 땅과 인구가 그러하듯이, 특히 축복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축복 사이에 전제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 오경 전체 및 그 이후 부분을 통해 전개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가 될 것입니다.

토지, 인구, 축복, 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창조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먼저,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격체로 대하심으로써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시작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소통하고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축복에는 자손의 번식이 포함되므로 출산의 약속이 있습니다. 셋째, 출산 후에는 인간 가족이 하나님 창조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파생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통치나 지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정원에서 우리는 동일한 세 가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와 축복관계가 있습니다. 2장에서 관계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야훼로 명명되었습니다.

야훼는 언약의 이름이며, 지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산의 약속이 있습니다.

3장 15절과 20절에는 출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장 15절에는 여자가 씨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서 아담은 산 자의 어머니 곧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인 하와를 지명합니다.

그러다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창조 1장에서는 온 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에덴 지역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에덴 안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단어는 땅으로도 번역되었으며, 이것이 2장과 3장의 적절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는 창조 약속뿐만 아니라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영적인 여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아브라함에 관해 집중하고 싶은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발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이는 아브라함이 고국에서 가나안까지 다양한 여정과 다양한 경유지를 생각할 때 적절한 유사점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시간을 보낸 후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지리적 여행은 그의 신앙 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중요한 단계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책꽂이처럼 12장 1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2장 1절의 언어가 22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이 마지막 책입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그의 영적 여정의 우여곡절을 추적할 수 있다. 그는 믿음이 자라나지만 동시에 그의 믿음과 신실함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삶을 훈련학교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지식이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화형 지식입니다. 마치 그 사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 사람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그 사람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삶을 감독하고 그의 믿음을 키워줄 지표를 그의 삶에 가져오시는 하나님.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계자가 될 아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망을 두었던 아들,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신 아들을 취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22장에서 큰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가서 이삭을 짐승의 번제로 나에게 바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장 1절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언한 것을 완전하고 완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며, 그의 믿음은 그가 신실함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곧 네가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20장 1절에서 우리가 찾은 것과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모리아 지방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를 산 위에서 번제로 드리라. 12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을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읽고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22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으로 가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방식이 아닌 상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그는 칼을 들어 이삭의 몸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하여 아브라함에게 칼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당신이 나에게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곧 가나안으로 가라는 뜻을 받았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나그네처럼,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같은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마찬가지로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내면의 삶, 내면의 삶,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현재에만 관련된 약속, 즉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약속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과 그 자신인 아브라함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가나안 땅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큰 나라의 왕이나 족장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고,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초월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뿐이리라.

그리고 그는 이 약속들이 속담에 영원히, 영원히 남아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에게 이루어질 약속, 영적인 질서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지으실 성읍, 거할 곳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실제로 믿음을 정의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니라. 나는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아시다시피 믿음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우리 마음 속에서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을 맡기고, 행동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이 신뢰할 만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는 경우, 그 비행기가 출발지에서 계획된 도착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당신은 '그럴 거야,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왜 그 비행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썄, 그건 당신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기 위해 교육의 장소에 왔습니다. 매일 수천 번의 출발과 도착이 발생하므로 지식과 경험, 어쩌면 자신의 경험, 여러 번 비행했을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오는 지식, 지식의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그것을 자신의 계정에 의로 더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글썄요, 그는 대화, 묵상, 기도, 묵상을 통해 지식과 하나님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과 공급을 이행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보호. 그러므로 22장에 나오는 그 절정의 순간에 그는, 필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소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이삭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과거를 떠나라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신의 미래, 그의 과거를 주십시오. 당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십시오. 가족의 부와 안전,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상속 재산을 통해 가족에게서 안전함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도, 알지도 못했던 곳으로 오세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너.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유산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을 지켜줄 씨족과 종족의 안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일어나 가십시오.

12장 4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과거를 떠나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22장에 보면 “네 아들 곧 네 사랑하는 독자 곧 약속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으며 실제로 이삭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 제안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오, 적절한 상속자는 이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희망이자 약속이자 이삭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리라고 약속한 것을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전할 때 그는 사실상 내가 네게 준 선물 곧 약속한 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땅, 당신이 얻게 될 부. 그것이 당신의 믿음과 사랑의 동기이자 생성입니까?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입니까? 그래도 날 믿어줄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삭의 은사에 대한 도전을 받는 이유입니다.

선물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주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물을 기꺼이 희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선물보다 주는 사람인 나를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영적인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배경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배경에서 나눔으로 기억되어야 할 두 가지 주요 항목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27절 후반부부터 시작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고, 하란은 롯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 있을 때,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마도 너무 이르게 죽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우르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칼데아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하는 지역, 지방입니다.

그리고 우르(Ur)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란은 데라가 아직 살아 있었고 실제로 하란이라는 곳에 살았으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하란이라고 했습니다. 하란은 오늘날 시리아로 알려진 북서쪽 지역에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백업을 집어들자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둘 다 결혼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라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아브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에서는 17장에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에게, 사래가 사라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17장까지 이야기에서 그는 아브람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과 나홀이 둘 다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그녀는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인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사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롯의 소개와 사래의 불모지. 왜 롯이 소개되었는가?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사래가 불임이므로 그는 그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가니라.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 정착하였습니다.

데라는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항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재적 상속자로서 롯입니다.

그러자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씨족을 다스리는 가부장적 지도자에게 제시된 도전. 그리고 상속이 질서 있게 이어져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족보와 그 강조점을 고려할 때 독자인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족보를 통해 5장에서 아담-셋의 족보를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을 낳은 데라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셋에서 노아,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인류 역사에서 창조시에 주신 약속은 구원자인 셋과 노아를 통해서 유지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지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르나 하란의 연대기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고향이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배경은 하란 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의 출생지는 우르입니까, 아니면 그의 출생지가 하란입니까? 글쎄요, 우리는 창세기 15장 7절과 느헤미야 9장 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떠난 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5장 7절,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희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7절에, 주는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하신 주 하나님이니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에서 추가로 도움을 받습니다. 스테반이 함께 가져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대아 우르로부터의 부르심은 이것을 하란 환경과 함께 가져오고 이 둘을 하나의 세계로 합칩니다. 훌륭한 행동 하나.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테반은 유대인 청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그 환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당신에게는 12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이 제공하는 설명은 12장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15장과 12장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합치고 있습니다. 텔레스코픽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네 본토와 민족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류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느니라. 나는 그것이 이 두 장소를 그의 고향으로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부르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우르를 부르고 다른 하나는 하란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약속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떻게 국가 목록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인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습니다.

1절: 네 본토와 민족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보세요, 국가 목록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록에 70개의 국가가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물론, 그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과 나라와 종족의 상황 속에서 언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언어를 앞세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9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고 그들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반복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들은 아버지, 그의 후손, 셈, 함과 야벳은 이 모든 나라 사람이니라 또한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있지만 가나안과 셈과 야벳을 위해 축복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도덕적 예언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와 그 다양한 단어 부분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축복의 기회를 세어보면 축복이 5배나 됩니다.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다섯 가지 저주에 대한 대응의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모든 나라에 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해결의 수단이 될 것이지만,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신뢰를 두는 사람들을 위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경우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뱀은 3장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특히 3장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은 4장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 번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8장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9장에 나오는 가나안에 대한 저주입니다.

다섯 가지 저주에 대응되는 다섯 가지 축복은 하나님께서 외향적이고 지속적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약속과 이후의 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10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1:27-12:3.